

삼위일체 대축일

기도서 312 번
 제1독서 : 잠언 8, 22-31
 제2독서 : 로마 5, 1-5
 복 음 : 요한 16, 12-15

숲 정 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인 홍보국
 인쇄인 관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강 론

우리, 나의 존재 이유?

박 성 팔 신부



잊혀진 5월, 별들이 우수수, 의령지방의 양민을 살해했던 무모한 경관의 총기사건, 한 나라의 경제를 떠들석하게 했던 큰손 작은손,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아들까지 끌어들이는 비정한 모정, 절절한 여운을 남긴 대도(大盜), 될대로 되라는 대낮강도의 추행살인 사건들... 결코 떠올리고 싶지 않은 크고 작은 일들을 보고 사람들은 무얼 생각할까? 정말이지 큰일이다. 확실히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사건들이 거대한 빙산(氷山)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신앙인이 아니라도 세태(世態)의 흐름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즘음에 사랑이신(삼위일체) 하느님을 믿어 고백하는 우리는 분명히 접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이유, 목적을 망각하고 있는 듯 하다. 목적과 수단이 전도(顛倒)되고, 가치관을 혼동하고 있다. 돈, 권력, 명예, 쾌락에 목적을 두고 생(生)을 걸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라면 하느님도 사람도 다 잊고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이유, 나의 존재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나의 존재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돈, 권력, 명예, 쾌락.....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언젠가 사라지고 만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다. 우리, 나의 존재이유는 삼위일체이신, 사랑이신 하느님과 상봉하고, 하나되는 데 있다. 인류의 첫 조상들이 하느님과 친교를 맺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자신의 지위를 잘 알고, 종교함을 지녔듯이 우리도 풍요로운 하느님의 생명, 사랑, 구원에 참여하는데 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하나되는 데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목적이고, 존재이유여야 한다. 이를 깨달을 때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사랑이신 하느님과 하나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께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분, 우리에게 당신, 아들들을 구세주로 파견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 안에 거처하시므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 보이신 삼위일체이시고, 유일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을 믿어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즉 남이 아닌 내가 복음의 힘찬 증인이 되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며 세상을 하느님과 화해시키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지금은 가리워져 있지만 언젠가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사랑의 신비안에 영원한 생명, 사랑,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장수분당 주임신부)



5월에 쓴 엽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보시옵소서.

□ 참으로 좋은 5월이옵니다. 대지는 푸르르고 농부들의 일손이 바빠지는 계절입니다. 당신의 섭리하심과 농부들의 땀방울이 우리를 먹이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봅니다.

그러면서도 소년체전 준비에 치진 어린 것들을 보노라면 안쓰러움이 짝이 없습니다. 그들은 벌써 여러 달을 공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오늘은 오송회 사건에 대한 구형도 있었습니다. 인간이 감히 누구더러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무라도 죄없는 자,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하신 당신의 말씀에 두려울 뿐이옵니다. 또, 누구는 오늘 광주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쉽게 납득이 안되는군요. 어지럽습니다. (5월 18일)

□ 오늘은 전국 소년체전이 열리는 날이라 매우 부산합니다. 시가지는 온통 꽃거리고, 많은 분들(모범운동사·약사·의사·부녀회원·경찰관·정화위원 등)이 의지에서 온 손님들 접대에 수고가 큼니다. 아늑한 도시, 훈훈한 인심을 볼 수 있어 참으로 기쁩니다. 언제나 이렇게 살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린것들이 오랜 시간을 땀방울에 땀 흘려서 안고 앉아 카드 섹션을 해야 하는지는 쉽게 수궁이 안됩니다. 대낮에 예고도 없이 차량통행의 노선이 바뀌는 바람에 시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10여분간이나 발이 묶여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얼얼하게 도세가 약한데도 손님접대를 위해서 이렇게 법석을 떨어야 올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문득, 빛들어 잔치하는 낭비 풍토를 규제하자는 가정의례준칙이 생각납니다. 지나침은 분명 모자람만 못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 분수를 알고 살게 하소서. (5월 21일)

숲 정 이 산책



정치적 방한이 아니고
사목적 방한이다

광주사태 3주기를 맞이하여

지금 우리는 민족적 비극이었으며,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이 국가로부터 버림을 받고, 총칼에 의하여 국민의 생명이 잔혹하게 살상, 유린된 80년 5월 18일에 일어났던 광주사태 3주기를 맞고 있다,

먼저 정의와 진리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죽어간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기를 기도하며 부상자들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의 한뼉한 마음에 하느님의 위리가 함께하기를 빈다.

우리는 광주사태 3주기를 맞아 하느님께서 인간의 양심에 박아 주신 자유와 진실, 정의와 사랑은 어떠한 물리적 폭력이나 여하한 권세에 의해서도 말살될 수 없으며, 이의 실현만이 민족의 밝은 앞날을 보장할 수 있다는 광주사태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며, 다시는 이같은 민족적 비극이 영원히 없기를 바란다.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본 사제단은 광주사태의 진상규명과 그 책임소재를 밝힐 것과 시민들의 복지와 복권, 학생들의 복학, 부상자에 대해서는 보상과 치료,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주어질 것으로써만이 진실을 바탕으로한 민족적 화해와 화합이 있을 수 있음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에도 광주사태의 역사적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채 은폐, 왜곡됨으로써 최 기식 신부의 부당한 구속과 판결, 박 관현 군의 죽음, 계속되는 학생소요 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고, 음성적인 탄압과 정보사찰이 가중됨으로써 시민들의 응어리진 마음이 풀려지지 않고 또 다른 불행의 불씨로 남게 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민족적 비극이요 시련이었던 광주사태의 진정한 치유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국민적 화해와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들이 속죄의 죽음으로 민족 앞에 스스로의 거취를 분명히 할 때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불신사조와 기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올바른 책임정치가 구현되리라 믿는다. 또한 바른 양심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공동선을 위하여 함께 행동하는 권리와 알고 알릴 권리가 보장되는 참다운 언론 자유가 있을 때 광주사태 희생자들이 함께 지키고, 함께 나아가고자 염원했던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꽃피게 되리라 믿는다.

우리는 사랑과 정의,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루고자 했던 희생자들의 고귀한 정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민족사의 비극이요 시련이었던 광주사태의 역사적 의의가 민족사에 수용되고, 국민 모두가 이 역사적 진술 앞에 속죄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긍지가 보장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사회가 건설되리라 확신한다. 1983년 5월 18일

천주교 광주 대교구 사제단

◁ 시 ▷

한 점의 티도 없으신 처녀시여

중앙성당 윤 시몬

한 점의 티도 없으신 영광된 처녀시여!
성령으로부터 선택 받으신 당신은
진실한 믿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한 자루의 초와 한 알의 밀알은
자기 희생의 기쁨 속에서
빛이 되고 수확이 됩니다.

그러나 당신은
초도 밀알도 아니셨습니다.

다만
기도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인이셨습니다.
당신은 아드님을 낳아 성전에 바치셨습니다.
그것으로 당신은 세상의 빛과 수확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성모라 불리셨습니다.

지금처럼 높이신 이의 곁에 앉으신 성모시여!
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당신의 아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시여, 당신은 나의 어머니십니다”라고.
그 한 마디 말씀은 당신의 영광,
또한 세상 모든 이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아드님은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한 송이 꽃을 당신께 드립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기 위하여
그 믿음과 순종을 배우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드려 주옵소서.

—성모의 달에 드리는 글—

해외여행 업무개시
국제여행사 개설

전 일 관 광

전 화 ⑥ 6 6 6 6 ~ 8

대한항공 국내외 대리점
실악산·제주도·전국명승지
성지순례(국 내외)안내

전주 꽃 직매장

진선미 꽃집

꽃꽂이 수강생 모집

조화(종이꽃) 대여

☎ ② 2 6 2 8

이 마리아(명자)

범 띠또(덕배)

[SS] FASHION 전주 특약점

버 킹 검 위 크 엔 드
로가디스 소사이어티 간 이 북

런 던 포 그 세계적인코트의명문

NEW MEN

샬 린 저 주니어북

전주시 중앙동 3가
삼화약국 옆 ④ 4 4 5 1
주인 유 율리안나

이 땅에 빛을

□ 200주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200주년 기념 전주교구 사업계획서

200주년은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다. 따라서 구경하고, 방관하는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난 4월 말 사제 연수회와 5월 4일 200주년 전주교구 중앙위원회를 통하여 확정된 사업계획을 알아본다.

기념행사 분과(실무: 사목국)

I. 신앙 대회		
본당의 날 행사	1. 미사(전집미사): 주교님 집전 2. 특별 강론 3. 간담회(교회 소개와 지역사회와의 대화) 4. 기타(본당 소개 리플렛 제작, 본당 유공자 표창, 운동회, 아치에스 행사, 각종 발표회)	1983년 중에 각 본당에서 실시
지구별 신앙대회	1. 지구 사정에 따라 결정 2. 각종 경연대회에 출전할 지구대표 선발대회 할 수 있음	1983년도에 지구별로 실시
교구 신앙대회	장소: 실내체육관 행사내용: 1) 미사(교구 주보에게 봉헌하는 미사) 2) 특별강연 3) 발표회: 성가 4) 전시회: 순교사로 5) 가톨릭 연예인초청 공연 6) 시상식	1983년 9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4시
교황님을 모시고 신앙대회	장소: 전주 종합경기장 행사내용: 1) 교황님 말씀 2) 농민들과의 만남 3) 민속놀이	1984년 10월
II. 색 신 파 일 치		
사상 강연회	장소: 전주, 이리, 군산 내용: 1) 가톨릭교회 2) 한국 역사안에서의 교회의 위치와 역할 3) 인간의 존엄성 강사: 권위있는 명사 초빙	1984년 4월
교리 경시 대회	1. 학생부(초·중·고) 범위: 교회사(특히 전주교구사) 장소: 각 본당 시상: 개인상, 단체상 2. 일반부 방법: 일정기간(5회 이상) 본당에서 특별강좌 개설 내용: 1) 교회의 사명 2) 성년 3) 한국교회사 4) 기타 시상: 교육 출석률이 우수한 본당 선정 시상	1983년 8월 21일 1983년 6월~9월 15일까지 본당별로 실시
성가 경연 대회	부서: 1) 청소년부 2) 청년부(일반부) 3) 어머니 성가대 4) 주일학교 내용: 지정곡, 자유곡 과정: 지구별 예선을 거쳐 각각 2팀씩 출전 본선에서 교구단위로 심사 본선: 일자-1983년 8월 15일, 장소-전주성심여고 강당	1983년 9월 4일
도보 성지 순례	1. 성지순례 코스: 윤정이-전동성당-치명자산 2. 가능한 전 교구민 참가 요망	1984년 5월
III. 문화 행사		
사료 전시회	1. 전시품: 1) 교회사로 2) 성미술 사진 2. 장소: 전주, 이리, 군산 3. 대상: 신자 및 일반	1983년 9월
가톨릭 음악인 초청 발표회	1. 가톨릭 저명 성악가 초청 발표회 2. 교구대표 합창단 발표 3. 장소-전주 예술회관, 일시-1984년	1984년 5월

기념회의 분과(실무: 교육국)

제 목	대 상	때	곳	의 안	내 용
제1차 교구 사무 회의	성 직 자 수 도 자 평 신 도	1983. 6. 27. 10~17시	가톨릭센터	1. 성직자 2. 수도자 3. 평신도 4. 전례	의안설명 및 토의
본당 사무 회의	전체신자	7. 31까지	각본당	의안 1-4	의 안 설 명

국내 최초로 상판에 이어
몸체가구도 KS마크 획득

한 일 싱 크

전북 총대리점

- 주방설계 • 씹크대수리
 - 가스렌지 • 주방용기
- 전주 중앙성당 정문 바로옆
전화 ④0841 야간 ④9874
박 안 당 (윤규)

K. S. 표시 허가공장

신흥 콘크리트

☎ ③6016 ⑥6415

대표 이교성(요셉)

시멘트, 벽돌, 블록, 보도 블록, 철근 콘크리트
근가, 철근 콘크리트판

□ 특수자연시 컴퓨터를
국내 최초로 시설
밝 고
눈을 편 하 고 보호하는
시원하게

특수안경, 표시없는 다색
접 조절렌즈, 가벼운 렌즈,
얇은 렌즈를 질에서나
값에서나 정성을 다해드립니다.

보안당  센터 구역전 오거리

전화 ③ 3 0 3 2

윤 종 순(베드로)

제 목	대 상	때	곳	의 안	내 용
제2차 교구 사목 회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1983년 8월 29일 10-17시	가톨릭센터	5. 신심운동 9. 지역사목 7. 교리교육 8. 가정사목	의안설명 및 토의
본당 사목 회의	전체신자	9. 30일까지	각본당	의안 5-8	의 안 설 명
제3차 교구 사목 회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1983년 10월 24일 10-17시	가톨릭센터	9. 특수사목 10. 교회운영 11. 선 교 12: 사 회	의안설명 및 토의
본당 사목 회의	전체신자	11. 6일까지	각본당	의안 9-12	의 안 설 명
제4차 교구 사목 회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1983년 11월 14일 11-17시	가톨릭센터	의안 1-12	분석·토의·종합
전국 사목 회의 연 수 회	전국 사목회의 위원회 결정에 따라 4명이 참가함.				

기념사업 분과(실무 : 관리국)

1. 승암산 종합 개발
 - 가). 순교자 묘역 조성
 - 묘지 이장 -묘역 조성
 - 길 및 벤취 -14처
 - 나). 성직자 묘역 조성
 - 다). 주차장·화장실·안내판 설치
2. 성지 매입
 - 이 누갈다·유 요한 생가 매입
3. 기념비 건립
 - 초록바위를 비롯한 순교 성지에

정신운동 분과(실무 : 홍보국)

I. 순교정신 양양

1. 순교자유해 순회기도회	지구별로 각 본당에서 실시, 수도단체에서 실시	83. 3-9월 83. 4월 9월
2. 기도 운동	성시간, 복주신공, 200주년 기도문 바치기 운동 전개 (숲정이, 기타 홍보활동 이용)	83-84년말
3. 피 정	신자들을 대상으로 2회 실시	84. 1월2월
4. 교구내 성지순례단 운영	주 1회 교구내 성지순례단을 모집하여 안내(하루 코스, 피정식)	83. 9월

II. 흥 보 활 동

1. 숲정이 200주년 특집	월1회 8면 주보 발행. 교구사·교구내 순교자전 및 200주년에 대한 각종 홍보	83. 3-84. 12
2. T.V 특별프로 방영	교구 200주년 행사 소개	84. 9월
3. 지방신문 이용	200주년 행사 소개와 홍보	84. 9월
4. 팸플렛, 리플렛 제작	선교용 리플렛 제작 성지개발 팸플렛 제작(각종 계획 완성후) 교구 신앙대회 리플렛 제작	83. 6월 83. 6월 83. 9(84. 9월)

III. 교 육 활 동

1. 시청각 자료 이용	200주년에 대한 영화 상영(서울에서 제작중)	83. 8-12월
2. 강 연 회	200주년 정신운동을 위한 강연회, 강사초빙, 주1회 실시	83 대림절 84 사순절

건 강 식 품

※ 각종 암·간질환·위장병·심장병 등
 제조처 : 왜관 수도원 농장 자연식품 연구소
 ☎ ②-2625~6
 공급소 : 전북 전주시 전동 구 성모병원 3층 309호
 ☎ 72-3925 ②-8091
 김 희 진(미 카 엘)

희소식

독사뱀 물린 사람
 · 백발백중(五代제)
 전문치료 단시간 완쾌
 연락처-전주시 전미동 1가 474번지
 전당리 시내버스 종점
 정미소 뒷집
 전화 5-3544
 송 준의(발라바)

**독일 치질약 재입하
하 이 덴**

여드름 치료제 입하

전주 시민약국

☎ ① 0009 · ③ 3338
 약사 김 병 의(마벨로)

□ 교구사 ③



여명기(黎明記) ②

이민족(異民族)의 이질적 문화와 사상과 종교가 만날 때 갈등과 충돌이 있기 마련이다. 그것은 기존 사회의 전통이 강하면 강할 수록 그 충격은 심하기 마련이다. 그 대표적인 예를 조선왕조가 천주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다. 천주교와 유교는 동, 서의 대립처럼 문화 사상적으로 각기 자부심과 우월감에 차있는 맞수였다.

천주교는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는 교리의 보편성과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사실 세계 도처에서 교세를 확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구한 역사와 큰 문화를 자부하는 유교가 자신을 양보할 수 없는 일이며 그것은 자기포기와 진배없는 일이었다. 동양에서 천주교와 유교의 상봉이 초장부터 적대감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명대 말기(明代末期)에 중국에서 포교를 시작한 예수회 선교사들은 중국의 풍습에 적응하며 전통 종교인 유교에 관용과 적응하는 태도로 선교를 한 결과 충돌없이 많은 지식인을 입교시켰고 불완전하지만 청나라의 강희황제로부터 신앙의 자유에 대한 법적 관용을 얻기까지 하였다.

조선 후기 왕조에서 천주교의 윤리적 요소는 이해와 환영을 받은 부분도 있다. 천주교 교리가 유교의 등을 치고 파탄을 만난 것은 천주교의 전례의식이 유교의식과 다른 데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조상제사 거부와 강경한 입장에 결정적인 원인이 있다. 그런 소행은 역사를 담은 것이 인격 목욕이 되듯이 전통적인 가족질서와 사회체제와 가치질서를 뿌리째 뽑고 삼강오륜을 멸절시키는 격이 되었다. 그것은 국시(國恥)에 대한 반역행위였다.

천주교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신자들이 신앙의 규구를 충실히 지키면서 조상제사도 여전히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1790년 겨울(사학경의에서는 1789년) 윤 유일이 북경주교 구베아에게서 받아온 서한에서 역사의 키가 바뀌었다.

“제사란 죽은 사람 섬기기를 산사람과 같이 하는 것이므로 만일 성학(聖學 천주교)과 조상제사를 같이 할 수 없다면 시행(신앙생활)하기 어려울 것이니 후 통용할 방법(제사와 천주교의 병행을 같이 할)이 있음니까”하고 질문하였다. 구베아 주교는 조상제사 금령의 근거를 이렇게 남기고 있다.

“나는 교황 끌레멘스 11세의 칙서 「엑스 일라데, 1715년 3월 19일」과 베네딕도 14세의 「엑스 쿠오, 1742년 7월 11일」에 나타난 교황청의 명백한 결정에 따라 부정적으로 대답했다. 이것이 유교문화권의 어디에서든지 저

촉되는 칙서였다.

클레멘스 11세의 칙서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이러하다.

1) ‘천주’라는 용어만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용될 수 있고 ‘天’ ‘上帝’ 등의 다른 용어 사용은 금한다.

2) 공자에게 바치는 모든 존경의식은 일체 금한다.

3) 조상을 공경하기 위한 의식과 제사 등은 그것이 상가에서 거행되든, 장례시 무덤 앞에서 거행되든 간에 일체 금한다. 이유인즉 이 의식은 다 미신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자는 비록 이 의식들이 순전히 사회적인 의식이 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더라도 이런 의식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다만 적대감과 다른 더 큰 악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으로,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락한다.

4) 조상의 신위(神位)라고 쓰여져 있는 신주(神主)를 집에 모시는 것을 금한다. 다만 신위라는 글자 없이 조상의 이름만 써서 모시는 것은 허락하나 아울러 망자에 대한 신자들의 믿음과 선조에 대한 효도의 본분을 가르쳐야 한다.

교황청의 칙서를 읽은 청국 황제 강희는 크게 노하였다. “내가 교황 칙서를 보건대 중국인의 윤리규범이나 생활관습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를 뿐 아니라 중국의 글자조차 제대로 모르는 유럽인들이 무식하고 한심하게 어찌 감히 중국인의 심오한 도리에 알가불가 할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조상제사 금령 결정은 교회사에서마저 비평거리가 되었다. 한국 천주교회사의 달레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교회는 북경주교의 입을 통해 조상숭배는 하느님 숭배에 반대되는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공공연하게 선언된 이 선언은 조선 국민의 모든 계급의 눈동자를 찌른 셈이었다. 왜냐하면 조선에서는 유교 즉 조상숭배가 국교였던 까닭이다. 이 숭배를 조금이라도 어기는 것은 전국의 여론에 의하여 맹렬한 반발을 일으키며 필요한 예절을 꺾는 것은 엄한 벌을 받게 되어 있다.……이로 비추어 볼 때 머지않아 일어날 폭풍우와 천주교인들의 적들이 그 싹트는 교회를 파괴하고 말살하기 위하여 신자들의 행동에서 끄집어 낼 방침을 예측하기는 쉬운 일이었다”.

이러한 교회의 근시안적 태도와 독선적 절대주의는 중국과 한국의 포교지를 살상의 현장으로 만들었고 양반계급의 신자들을 교회에서 멀리 추방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전교의 방해거리가 되었다.

마춤 · 대어
웨딩드레스 · 약혼복 · 연주복 · 부케 · 신부화장 · 비디오 촬영

신부의 집

동서판통로 서울신탁은행 앞
전화 ⑥ 6951
정인기(논저노)

- 혼수(회갑) 옷감
- 복수 파티복
- 고급 침구류
- 각종 솜 일체
- 커튼지

도매상

서울주단

☎ ③0453 ⑥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르나르디노)

□ 해외여행 및 성지순례 안내
—형제들을 위해 성실한 봉사자로 사랑을 전파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내쇼날 항공

전북지구 주재원 이은자(엘리사벳)
전주시 서노송동 601(가톨릭센터 후문)
전화 ④ 2502 · ③ 4471

□ 순교 인물전 ③

신해박해의 권 상연

권 상연(權尙然 야교보)은 안동 권씨 양반가문 출신으로 1751년 안동에서 태어났으나 어려서 부모를 잃었다. 그는 고향을 떠나 공주에 살다가 그의 내사촌인 윤 지충의 동리로 와 살았다. 그는 문학과 유학(儒學)에 몰두하며 한걸음 걷고 있는 내종제(內從弟)인 지충과 친밀히 내왕하며 지냈다. 그는 교리연구를 시작하고 있는 지충의 집에서 천주실의와 절구 두 권의 책을 얻어 보고 입교하여 지충과 교리연구에 골몰하였다.

상연의 신앙 결단은 지충과 손을 잡았다. 그의 고모인 지충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모친의 유언과 교회에 순종하는 지충의 용덕에 감동하여 동조하였다. 상연은 신주를 땅에 묻으려다가 이목이 두려워 남이 안보는 곳에서 태워 재는 묘안에 묻고 제례(祭禮)는 폐지했다.

윤 지충과 권 상연의 소행이 공중에 바람처럼 퍼지자 원수같이 천주교도를 탄압할 기회를 찾던 홍 낙안(洪樂安)에게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낙안은 두 사람을 엄벌하도록 좌상인 채제공(蔡濟恭)에게 극렬한 장문을 올리는 한편, 진산군수 신 사원(申史源)에게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편지를 띄웠다.

이 장서(長書)는 기본 자료가 되어 유림(儒林)들의 탄핵문이 빗발쳤다. 채제공의 심정은 착잡했다. 그 공격의 밑바탕에는 당파의 알력이 지워처럼 묻혀 있고 더구나 후건인 격이요 혈연과 우정으로 영겨있는 정 약용 이 가환 이 승훈 등이 직접 나치게 되어 착잡한 입장에 놓여 있었다. 자신도 천주교도를 미워하는 마음이라면 어느 누구에게 뒤지지 않고 마음은 놀라고 답은 튀고 있다고 공박하는 체 하였다. 그러나 공격이 비화되어 무관한 사람들이 환난을 겪으면 정사(政事)가 큰 문제라고 걱정하는 듯 하면서 은근히 두호하려 했다.

정조 임금 역시 유혈의 지평선을 바라보며 이 일을 확대시키지 않으려 했다. 임금은 채제공의 난처한 입장을 이해하고 그의 재량으로 천주교를 근본적으로 자멸시킬 대책을 세워서 진정시키기를 바랐다. 윤 지충과 권상연은 전주감영에서 아전에 의해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이것은 사건 심리를 담당했던 임피현령에게 제출되었다. 윤 지충의 최후 진술은 전라감사 정 민시(鄭民始) 앞에서 “제 약한 조망은 덕을 닦고, 천주를 제대로 섬기기를 힘쓰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이밖에는 더 아릴 말씀이 없습니다”는 말로 입을 다물었다.

권 상연은 신주 소각의 추궁에 할 말이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5대가 지나면 양반들까지도 모두 신주를 파묻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엄한 벌을 내립니까?” 하고 탄압의 지변에는 종교적 이유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숨겨

져 있음을 꼬집었다. 전라감사는 30도의 매를 친 후, 맞아 죽어도 신앙을 버릴 수 없는가 물었다. 대답은 간단명료했다. “제가 살아서진 죽어서진 가장 높으신 아버지를 배반하게 된다면 제가 어디로 갈 수 있는가” 하느님을 의면하는 사람은 갈 곳이 없다. 저 높은 세계를 향해서 걷는 사람에게 세상은 나그네의 주막처럼 가벼웠다.

여론에 약한 현실주의의 인간은 비굴할 수 밖에 없었다. 좌상 채제공은 두 사람의 처형을 성토했는 조야(朝野)의 함성 앞에 자신의 명성과 지위와 가산의 보존을 위해 무릎을 꿇었다. 그래서 정조임금에게 두 사람을 극률(極律)로 다스리도록 기를 썼고 이기심도 충성이 되었다. 정조는 윤 지충과 권 상연을 참수하고 그 머리는 주민들이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5일간 높이 매달라고 명하였다. 두 사람은 남문 밖 형장에 끌려왔다. 형 집행관은 두 사람에게 마지막 다짐을 하였다. “임금에게 복종하고, 조상의 신주에 상례적인 공경을 드리며, 천주교를 버리겠느냐”고 물었다. 답이 우는 새벽도 아닌데 베드로가 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결안문을 읽었다. 침착하게 누어 큰 나무 토막을 알맞게 고인 후 망나니에게 치라는 신호를 하고 예수, 마리아를 부르며 목이 잘렸다.

산천도 숙연히 말을 잊은 채 1791년 12월 8일(음 11월 13일) 오후 3시(辛時)는 이 땅의 성금요일이었다. 윤 지충은 33세, 권 상연은 41세 나이도 그럴듯 했다.

아빨사, 정조는 후회했다. 이 처형이 관례가 되어 벗어날 불행은 막아야했다. 형집행 정지를 전하는 특사와 파발마의 발굽이 빠지도록 뛰었으나 이미 치명의 월계관이 세워 있었다. 처형 후 9일간 포졸들은 시신을 지켰으나 왕의 유히로 가족들에게 장사를 허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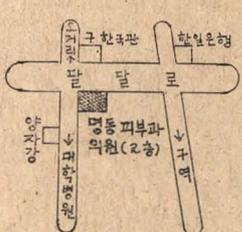
하느님과 함께 생을 마치는 자는 죽을 수 없었다. 엄동설한에 방치된 시신과 형장은 방금 형이 끝난 듯 유혈이 신선했다. 친척과 친지들, 관중들까지 두렵도록 놀라왔고 이 기적에 감동한 외교인들은 두려움없이 입교했다. 임종 직전의 환자가 형구의 피를 씻은 물을 마시고 완치되었고, 죽어가는 사람은 피를 닦은 수건을 만지고 소생했다. 초대 교회 신자들은 그분들의 두발과 형구의 목편 조각을 성패로 모시고 영약으로 여겼다. 그들의 죽음은 절사(節死)로 인정되어 주민들은 무죄를 주장했다.

주 문모 신부는 “훗날 천주교가 대행(大行)하면 두 분의 무덤은 당연히 성당 안에 들게 되리라”고 했다. 그들은 죽지 않았다. 성인의 삶은 죄인의 모습과 다르게 살고있을 뿐이다.

범모약국
가톨릭 센터 동편
☎ 5319
김영춘(아오스님)

금·은·보석·시계는
전주 남문외 교우집!
금보장
장(방지거) 채(마리아)
☎ 6-4989(사구팔구)
최신 컴퓨터, 조절기 특설

■ 개 원 ■
全州 **명동피부과의원**
진료과목 : 피부과·비뇨기과
진료시간 : 오전8시~오후8시
(구 역전 오거리 팔달로변)
전화 ☎ 1719
원장 최창기(루가)
전문의 최창기(루가)





□ 천호공소 순교자 유해 발굴조사 마쳐

지난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가졌던 순교자 유해 발굴작업은 2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황 인규 신부) 주관으로 주교님과 교구 당국의 참석 아래 천호공소 신자들의 협조를 받아 발굴을 마쳤고 21일 유해조사를 가지므로 발굴 조사작업이 끝났다. 이번 발굴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김 성화 외 6인인 7인 무덤은 한분이 더 발견되어 8인 무덤으로 밝혀졌고 병인년 숭정지에서 순교한 복자중 1923년의 조사서에 나타난 두분의 복자 유해가 발굴되었는데 유해의 의학적 조사결과 복자 정발도르메오와 한요셉임이 거의 확실시되었다. 또한 구전으로 전해진 두분의 무명 순교자 유해도 발굴되어 이번 발굴로 12분의 유해가 조사된 셈이다. 이들 묘소에서 묘석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이장 과정과 당시의 여유없는 상황이 빠뜨리게한 듯하다. 그런데 복자 한요셉의 묘소에서는 몸고상 1점과 무명 순교자의 묘소에서는 십자가 1점, 묵주 1점, 성회패 2점이 나왔다. 이번 유해의 의학적 조사는 전복의대 해부학교실 이 무삼교수와 전 병특선생이 담당했다. 이번 발굴 조사의 경비는 익명의 독자가의 헌신적 협조로 이루어졌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한가지 크게 아쉬운 점은 타교구의 경우와는 달리 발굴작업의 진행 과정에 있어 교구 내 성직자와 평신도들의 참여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200주년 행사의 참여도와 관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되겠다.

□ 2지구 순교자 유해 순회기도회 마쳐

지난 5월 7일부터 17일까지 2지구 순교자 유해 순회기도회를 마쳤다. 기도회는 농번기를 피해 8월 중순경에 다시 계속된다. 2지구 각 본당의 기도회 성금은 다음과 같다. 대야-65,400원, 오룡동-205,920원, 팔마-151,350원, 둔울동-147,660원, 월명동-219,925원

□ 아가페 정양원 개원식

6월 5일 오후 2시 주교님을 모시고 간소한 개원식을 갖고져 하오니 오셔서 함께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초대는 생략합니다)

모시는 대표 서 정수 신부 배

□ 교리 해설

삼위일체(三位一體)

삼위일체의 교리는 하느님이 알려주신 교리로 가톨릭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신조이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며 삼위일체의 생명이 부름을 받고 있다.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이 한 분만 계시는 것이며 아울러 영원으로부터 동일한 신성(神性)을 소유하시면서 구별되는 세 위(位)가 계시는 것이다.

성부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세상에 보내신 성부의 아들로써 사람이 되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성신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시어 교회 안에 머무르시고 우리를 성화시키며 사랑으로 일치시킨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180년경 안티오키아의 테오필루스가 처음 썼으나, 그 개념은 이미 구약성서에서 암시적(暗示的)으로 표현되었고, 신약성서에서 명시적(明示的)으로 표현되나 나타나 있는 데서 신앙화된 것이다.

삼위일체 교의는 초대교회의 모든 신앙고백과 찬미가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325년의 니체아 공의회, 381년의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재확인 되고 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삼위일체의 신비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교회가 철두철미하게 고백하는 성삼위의 신비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구제사업을 깨달을 수 있다. 성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공로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낳아 주시고 당신께 입양시킨다. 그리고 그 어른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완전한 은총과 사랑의 경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요십이(512) 김병오

제12회 소년체전 때 카드섹션 구경 잘 하셨어요?

카드섹션하는 학생들이 옆에서 봤는데 전연 안보이더라!

성화대근방에서 봤는데 잘 안보이더라!

어디서 구경했어야 잘보였으며 잘구경한 사람의비용은 전체의 얼마나 될까?



재즈 크라식

상당수준의 교착본(체르니, 쇼파타) 소화자에게 악보없을 시도 만주해 낼 수 있는 재미 크라식 반주법의 희소식

피아노 반주법

전화 ④ 3770
이일규(알로이시오)
※ 구 역전과 전교중기 사저터 전복은행 노송동지점 임

장례 수의 센터

신자들의 많은 이용 바람
연락처 ② 9193
② 0915
주-배 바울라(만녀)



코오름 맨스타 효성 맨하탄

전주특약점
바바리·콤비·잡바·T
셔츠·남방·사파리·바
지·맨하탄 Y셔츠·빅
타이 ★ 국민카드 가맹점
전화 ② 4561
김돈중(아드리아노)

칼라 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급번 급성사진 45분 완성 칼라 현상 인화기를 신설 하고 83년 5월 23일부터 가동하오니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 있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싸이즈는 3×5, 5×7, 8×10등 우량한 사진을 처리

미영 칼라 현상소

☎ ②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 **축!** 고구장 박 정일 주교님 성성 기념(31일)
- **축!** 견진: 29일 -전 동성당, 30일 -노충동 다리목 공소
- 1. **본당 실무자(사무장) 연수회:** 6월 2일 오전 10시 가톨릭 센터, 3일 -성지순례, 회비-1만원(본당 부담)
- 2. **성체회 수녀원 종신서원식:** 2일 오전 11시, 장소-노충동 성당
- 3. **레지오 연수회:** 6일 오전 9시30분~오후 3시50분, 대상-초·중·고·레지오 단원, 참가비-2천원
- 4. **5지구 학생회 회장단 모임:** 6일 오후 2시, 장소-남원성당
- 5. **성령쇄신 봉사자 모임:** 10일 오후 8시, 장소-가톨릭 센터, 대상-성령쇄신 세미나 받은 분들
- 6. **7지구 중·고생 체육대회:** 5일, 장소-황등성당
- 7. **축!** 환영! M.E 3차 주말강습: 4일~6일 8. **고구정 휴무:** 6월 4일(소풍)

(중앙)

주임 신부 윤정호
수석 보좌 안철인
보좌 신부 함철인
사도 회장 김인협

- 5. **부녀회·빈첸시오회:** 30일 어머니미사 후
- 6. **주일학교:** 주일 오후 2시, 미사-주일 오후 3시
- 7. **금주전례:** 해설-김인식, 독서-①김성원 ③교회구
봉헌-독서하신 분
차주전례: 해설-황만금, 독서-①이갑진 ③강기연
봉헌-독서하신 분

□ **지난주 봉헌금:** 511,720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 1. **사제양성 후회회:** 회원을 모집함, 회비-1년 5만원
- 2. **사도회 월례회:** 6월 1일 저녁 8시30분
- 3. **성모의 밤 행사:** 31일, 1부 미사-8시, 2부 성모의 밤 행사-8시30분, 지참물-묵주·양초·기도서 각 단체에서 꽃다발·화분·기도문 준비
- 4. **유아세례:** 매일 첫주일 공식미사 전
- 5. **4지구 중·고생 체육대회:** 6월 5일 해성학교 운동장
- 6. **새로 오신 수녀님:** 수고 많이 하시겠습니다
- 7. **차주전례:** 독서-①한문권 ②차승원 신자들의 기도-강기호·한순례·신영창

□ **지난주 봉헌금:** 258,050원 **교무금:** 143,000원

(노충동)

신부 ②0969
수.사 ②7032번

주임 신부 김용태
보좌 신부 나춘성
사도 회장 이홍재

(숲정이)

전화 ②7366번 주임 신부 김종길
수.사 ②9567 사도 회장 김수걸

-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 2. **요한회:** 오늘 공식미사 후
- 3. **누깁다회:** 다음주 토요일
- 4. **성지순례:** 6일 오전 6시 출발, 회비미납자 오늘까지
- 5. **평신도 강론:** 정주복(아오스딩)
- 6. **첫 영성체 교리:** 매주 화~금요일 오후 4시
- 7. **금주전례:** 해설-이귀례, 독서-정주복·이원길 기도-김남곤·강삼
- 차주전례: 해설-홍성조, 독서-강 삼·백시현 기도-이규철·남상용

□ **지난주 봉헌금:** 128,271원 **교무금:** 441,700원

(전동)

신부 ②6208 주임 신부 김병업
사무 ②3222 보좌 신부 박찬길
수녀 ②8347 사도 회장 이종두

- 1. **축!** 견진: 29일 공식미사
- 2. **글라라 형제회:** 오후 1시30분
- 3. **사도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 4. **유아세례:** 다음주 8시 30분 미사후
- 5. **성가정회:** 6월 1일 12시
- 6. **주일학교 성가 경연대회:** 최우수상(합창·독창-이정화) 협조해 주신 합창부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 7. **주일학교 성모의 밤:** 30일 저녁미사 후
- 8. **월요일기도회:** 매주 저녁미사 후-강당
- 9. **글로리아 성가연습 안내:** 매주(목·금)-저녁미사 후
- 10. **다음주 전례**
아침미사: 해설-박중구, 독서-①김동연 ②최충만
공식미사: 해설-서정옥, 독서-①김병오 ②김홍기
저녁미사: 해설-경양수, 독서-①김동수 ②이영철

□ **지난주 봉헌금:** 668,020원 **교무금:** 441,000원

(파티마)

신부 ②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수녀 ②4804 사도회장 황희상

- 1. **유아세례:** 오늘 3시반 미사후
- 2. **기사회:** 4일 2시
- 3. **성지순례:** 30일 아침 9시 출발(천호-여산-나바우)
- 4. **6월은 예수 성심성월:** 6월 3일부터 첫영성체만 교리 오후 5시30분부터 한시간씩 매일 있음. 17일까지
- 5. **로사리오의 모후 푸리아:** 다음주에 있습니다
- 6. **마니피캇 합창단:** 오늘 10시 미사에 수고하십니다
- 7. **감사헌금:** 문배례사(1만원), 이법선(5천원)

□ **지난주 봉헌금:** 210,590원 **교무금:** 431,000원

(덕진)

신부 (3)2182 주임 신부 김봉희
전화 수녀 (72)1222 보좌 신부 정양열
사무 (72)6259 사도 회장 양상열

- 1. **진복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 2. **사도회 상임위원회:** 6월 4일 밤 8시30분
- 3. **첫 영성체 교리:** 6일부터 매주 토요일 3시
- 4. **다음주일 행사안내**
☆성심부녀회 월례회: 5일 공식미사 후
☆까리따스 자모회: 7일 오후 2시
☆4지구 중·고생 체육대회: 5일 9시
- 5. **마니피캇 합창단 감사합니다:** 오늘 미사중 성가
- 6. **월요일은 본당 휴무 및 수녀원 피점:**
면담하실 분 미리 연락 바람
- 7. **주일 미사시간 엄수:** 30분전 고백성사 드림

□ **지난주 봉헌금:** 416,025원 **교무금:** 624,000원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조성호

- 1. **6월은 예수 성심성월:** 매 미사후 공동성월 바침
- 2. **사도회:** 오늘 공식미사 후
- 3. **성모의 밤 행사:** 오늘 저녁미사 후 (성모님께 편지)
- 4. **첫절례 6:** 6월 3일, 첫절례 7: 6월 4일 저녁 8시